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영국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오토트레이더가 주관하는 '2025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2025 올해의 차'와 '최고의 대세 전기차'에 선정된 'EV3', '도심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 아이오닉5', '7인승 최고의 차 쌍타페'.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기아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 4관왕 쾌거

英 최대 거래 플랫폼 '오토트레이더' 주관
EV3·아이오닉5·쌍타페 등 수상 모델 호평
“현지 소비자의 ‘올해의 차’ 선정 고무적”

현대차그룹이 영국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오토트레이더가 주관하는 '2025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차를 비롯 총 4개 부문을 석권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3일 "기아 'EV3'와 현대차 '아이오닉5', '쌍타페'가 '2025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5)', '최고의 대세 전기차(Best

Mainstream Electric Car)', '도심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Best Car for City Drivers)'와 '7 인승 최고의 차 (Best 7-Seater)'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모델들이 이번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수상한 결과는 영국 자동차 소유자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오토트레이더는 22만명 이상의 영국 내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의견을 받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및 모델들을 대상으로 총 25개 부문에 대해 수상 차량을 선정했다.

기아 EV3는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2025 영국 올해의 차'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2025 덴마크 올해의 차'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 ▲'2025 컴팩트 SUV 부문' 등 권위 있는 자동차 상을 훙

쓸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역시 ▲'2022 세계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 ▲'2022 일본 올해의 수입차' 등에 선정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현대차 쌍타페는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최고의 차'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 주관 '2024 탑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SUV' 부문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내연 기관차' 부문을 수상하는 등 주요 자동차 어워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아 EV3가 영국 및 세

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실제 영국 소비자들이 선정하는 오토트레이더 2025 올해의 차 수상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마찬가지로 현대차 아이오닉5와 쌍타페 역시 영국 고객에게 최고의 차로 선택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영국 오토트레이더 신차 어워드서 ▲'2024 로리 리드 어워드(The Rory Reid Award 2024)', 현대차 아이오닉5N ▲'2024 가족을 위한 최고의 차(Best Car for Families 2024)', 기아 EV6 ▲'2024 반려견을 위한 최고의 차(Best Car for Dog Owners 2024)', 기아 EV6 등 3개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기아 세단 K5·K8 연식변경 출시...신규 트림 추가

베스트 셀렉션, 안전·편의사양 대거 탑재

기아가 브랜드 대표 세단 K5와 K8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6 K5'와 'The 2026 K8'를 출시했다.

기아는 23일 "최근 'The 2026 K5'와 'The 2026 K8'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2026 K5·The 2026 K8은 다양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한 신규 트림 '베스트 셀렉션'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아는 베스트 셀렉션에 상위 트림의 핵심 안전 및 편의 사양과 인기 선택 사양을 대거 반영하면서도 고객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해 실용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기아는 The 2026 K5 베스트 셀렉션 트림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행차/정면 대행차)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안전 하차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내 안전구간/곡선로) ▲고속도로



기아 대표 세단으로 연식변경 모델인 'The 2026 K8'(왼쪽)과 'The 2026 K5'의 외장 모습. <기아 제공>

주행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The 2026 K8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을 바탕으로 ▲18인치 전면가공 휠 ▲뒷좌석 이종접합 차음 글래스 ▲다이나믹 앰비언트 라이트 ▲스웨이드 헤드라이닝 등을 기본 적용해 내·외장 고급감을 한층 높였다.

The 2026 K5의 판매 가격은 2.0 가솔린 ▲스마트 셀렉션 2천724만원 ▲프레스티지 2천808만원 ▲베스트 셀렉션 2천928만원 ▲노블레스 3천154만원 ▲시그니처 3천469만원, 2.0 하이브리드 모

델은 ▲프레스티지 3천241만원 ▲베스트 셀렉션 3천349만원 ▲노블레스 3천573만원 ▲시그니처 3천888만원이다.

The 2026 K8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3천679만원 ▲베스트 셀렉션 3천813만원 ▲노블레스 4천208만원 ▲시그니처 4천390만원 ▲시그니처 블랙 4천546만원,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노블레스 라이트 4천206만원 ▲베스트 셀렉션 4천339만원 ▲노블레스 4천552만원 ▲시그니처 4천917만원 ▲시그니처 블랙 5천52만원이다. <기아 제공>

현대차·기아 '차세대 커넥티드 DTG' 개발 나선다

국토부-교통안전공단과 협력 체결

DTG 기술개발 및 보급추진 협력 MOU

일자 : 2025.06.19.(목) 장소 :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국토교통부 TS 협약 체결 현대차 HYUNDAI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하는 장치다. 교통안전법은 버스,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에 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 사업자가 운행기록을 직접 DTG로부터 USB로 추출해 수동으로 제출하거나 별도 제출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현대차·기아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별도의 장치나 데이터 추출 과정 없이 커넥티드 카 서비스만으로 운행 기록의 저장·분석 및 제출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